



‘독일과 미국의 만남으로 탄생한 리슬링 와인’

에로이카 리슬링

Eroica Riesling

지역	미국 > 워싱턴 주 > 콜럼비아 밸리		
포도품종	리슬링 100%		
알코올	12%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0~12℃		
테이스팅 노트	은은하면서도 진한 금빛을 띠는 화이트 와인으로, 섬세하며 산뜻한 탄력균형향이 느껴지며 균형잡힌 산도감과 미네랄 노트의 구조감이 뛰어나다.		



제품설명



에로이카는 독일 리슬링 대표 와이너리 닥터 루젠(Dr. Loosen)과 샤토 생 미셀의 조인트벤처로 1999년에 출시된 워싱턴 리슬링 와인이다. 닥터 루젠은 독일 모젤 리슬링에 있어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생산자로 200년 이상 루젠 가문의 경영아래 화려한 수상 경력의 리슬링 와인을 생산해 온 브랜드이다. 워싱턴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로 워싱턴 AVA 등급 체계를 정립한 No.1 생산자인 샤토 생 미셀 함께 독일의 대표 품종 ‘리슬링’을 선택하여 ‘에로이카’를 출시하였다. 구대륙의 와인 메이킹 기술과 신대륙 천혜의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이용하여 생산한다는 의미를 담아 베토벤 심포니 No.3의 제목인 ‘에로이카’로 이름을 지었으며 출시 후 5년 연속 (1999-2003) 와인 스펙테이터 Top 100에 등극하는 명예를 얻으며 리슬링의 한계를 뛰어넘은 와인으로 인정 받았다.

수상내역



2019년티지 와인 엔수지애스트 Wine Enthusiast 92점 TOP 100 선정
2019년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91점 TOP 100 선정
2019년티지 와인 앤 스피릿 Wine & Spirits 92점

와이너리



1934년에 설립된 샤토 생 미셀은 미국 와인의 기준을 세운 최초의 워싱턴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이다. 1967년부터 유럽 전통 포도 품종으로 다채로운 스타일의 워싱턴 와인을 선보였으며, 현재 워싱턴 지역의 AVA 등급 체계의 기반이 된 혁신적인 와이너리로 유명하다. 샤토 생 미셀은 콜럼비아 밸리 AVA 지역 내 총 1,416ha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워싱턴 주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콜드 크릭 빈야드를 포함하고 있어 와인에서 노련미와 숙성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유럽 와인 명가들의 합작을 통해 (콜 솔라레-이탈리아 안티노리, 에로이카-독일 닥터 루젠, 테네트-프랑스 가시에르) 워싱턴 주 와인 생산지의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신대륙 와인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였다. 샤토 생 미셀은 총 다섯 가지의 레인지를 통해 콜럼비아 밸리가 가진 다양한 매력의 와인들을 선보이고 있다. 신대륙과 구대륙의 조화를 담아낸 ‘콜럼비아 밸리’, 풍부한 과실미가 두드러지는 ‘인디언 웰스’, 콜럼비아 밸리만의 고유한 페루아 특성을 여실히 나타낸 콜드 크릭과 카누 리지의 ‘싱글 빈야드’ 레인지. 워싱턴이 추구하는 구대륙 스타일의 베스트 빈티지 와인인 ‘에토스’. 마지막으로 보르도 스타일의 블렌딩 와인 ‘메리티지 시리즈’로 완성되는 샤토 생 미셀의 포트폴리오는 미국의 “베스트 벨류(Best Value)”와인으로 유명하다. 샤토 생 미셀은 단조로웠던 캘리포니아 위주의 미국 와인에서 벗어나 미국 와인 산업에 새로운 척도를 마련한 워싱턴 1위 와이너리이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